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6월 2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9장 17-18절

설교제목 : “네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백성 살기와 연관해 오늘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7-18절에서 등장하는 ‘네 형제’, ‘네 이웃’, ‘원수’, ‘동포’가 다 이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네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17절) 이웃에 대하여 마음에 미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이웃에 대한 미움이 발생했습니까? 본문에서 그 답이 있는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입니다.(17절) ‘견책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이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견책하지 않고, 그 미움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견책하는 것과 비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견책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잘못이 아니라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말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상처주는 것입니다. 남을 상처주는 비판은 금하고, 남을 세워주는 견책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견책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려는데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우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견책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 전 ‘신앙과 삶’이란 잡지에서 ‘생활 속의 기독교 윤리 편’에서 나온 내용인데 오늘 본문과 매우 관련되어 참고해 봅시다. 첫째,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누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고, 삶이 성경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그 자신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을 견책하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잘못을 지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내용도 언제 그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분명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한창 화가 나있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아무리 옳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해도, 그 지적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셋째, 어떻게 잘못을 지적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개인적 잘못을 대중 앞에서 지적하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지적이 좋은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그 문제의 성격과 상황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공개적인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적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경적이고 여러 사람들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적을 할 때, 이것이 절대적 진리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냐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견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왜’라는 요소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공격하는 형태의 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의 내용이 진리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진리는 형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없는 지적은 그냥 소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남을 허물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고쳐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잘못을 지적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를 수용하고, 고칠 수 있는 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18절) ‘원수를 갚지 말며’는 ‘복수하다’는 뜻입니다. 복수는 계속적인 악순환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더불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를 한없이 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 깊이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적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쌓지 말아야 합니다. 쌓여진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엡4:27에서 보면, 마귀에 기회는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쌓여진 분노는 악독한 말과 격한 분노와 복수심과 퍼붓는 말과 욕설과 조롱으로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18절)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네 자신과 같이’입니다. 이웃이 곧 나 자신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 사용하던 구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최초의 이웃이 하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창2:21) 즉 너는 나다와 같은 말입니다. ‘너는 내 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질서였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적자생존의 생활방식임으로 이웃은 모두 적입니다. 다 경쟁자일뿐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결코 이웃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다 너는 나다’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입니다.(창3:6)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달하신 명령입니다. 하와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와가 뱀과 잘못된 대화를 나눌 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건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욕망이 하와에 대한 사랑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애입니다. 자기사랑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아내보다 우위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애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은 이 자기애로부터 벗어나 원래 아담의 고백처럼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라는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취된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이웃 사랑이 실천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건책과 비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19:17)
- 2) 이웃의 허물을 건책하였는데,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레19:18)
- 3)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 말씀처럼 이웃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잘못을 지적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침묵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을 지적해서 긍정적으로 작동했던 경우든지,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